

## 복지시설의 핵심전략을 찾아서

순례때마다 여러 복지시설들을 견학하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직원교육에 힘쓰며 끊임없이 연구하여 개선, 개발, 혁신해 나가는 모습이 좋아서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입니다. 의식주에 있어서도 생활자들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고마워서입니다.

물리적 환경,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연구개발, 직원교육, 직원들의 헌신적 수고와 사랑, 서비스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해마다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복지시설을 발전시켜온 시설장님들과 시설 직원들의 수고를 고맙게 생각하며 또 본받으려 합니다.

다만 저의 복지이념 즉 *invisible, ubiquitous, normal, universal, natural welfare* 의 관점에서 제가 만약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근무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몇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지시설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결국 다원주의, 절충주의 *context-sensitive eclectic approach*의 관점에서 취사선택해야 하겠지만, 저의 이 생각들이 각 시설에서 적절히 참조되고 응용되었으면 합니다.

### 첫째,

생활시설의 이름과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시설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일반 주택들처럼 짓는 곳이 많고 또 기존 건물을 쓰더라도 그 구조를 최대한 가정단위의 운영에 적절하게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이나 건물에 '000의 집' 등의 보통 가정과 같은 이름을 붙이고 그 규모나 운영방식도 최대한 일반 가정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복지시설은 "00빌라", "00주택", "00아파트", "00빌리지", "00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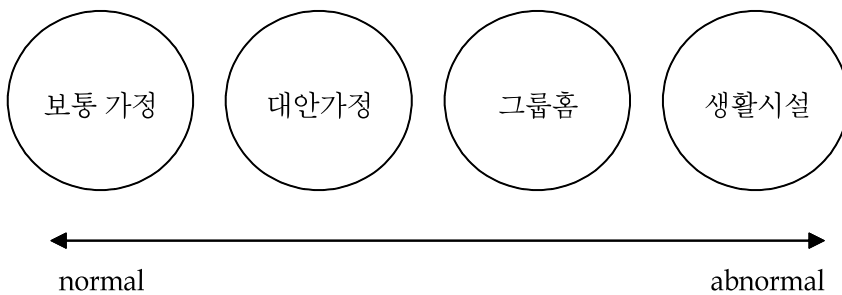
립” 등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장애인, 노인, 아동 시설들이 할 수만 있다면 원내 그룹홈 형식이나 빌라, 연립주택 개념<sup>1)</sup>으로 구조도 바꾸고 운영방식도 바꾸고 시설 이름도 OO빌라, OO연립 등으로 바꾸고, 선생님들께는 소그룹공동체의 시설장에 해당하는 명칭과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시설 전체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에 입주해있는 가정을 단위로 하여 (예를 들면, 아이빌리 2동 302호, 은빛파크 A동 103호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설을 수십명의 식구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이웃처럼 오가며 나눌 엄두가 나겠습니까? 저는 서울 도심에 살지만 이웃끼리 반찬도 나눠먹고 오가며 다과도 같이 하고 함께 놀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웃집의 식구가 수십명씩이나 된다면 어떻게 반찬 나눠먹고 놀러가고 차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Normalization은 생활시설의 서비스도 최대한 보통의 가정과 같거나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철학에 맞게 주거형태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대안가정센터는 보통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바깥 세상으로 “밀어내어 통합하는 push-integration” 전략을 취합니다. 생활시설은 주로 시설바깥 세상으로

1) 최근 여러 시설들에서 보육원이나 양로원, 재활원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지 않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OO 마을이나 OO동네 - 이러한 명칭은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OO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식구가 많습니 다. “OO센터”라는 이름도 웬지 회사나 기관같은 느낌이 들어 여전이 abnormal한 것 같습니다.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OO빌라”, “OO주택”, “OO빌리지” ... 이런 이름을 쓰면 어떨까요

부터 “끌어당겨 분리수용하는 pull-segregation”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시설일지라도 생활방식을 최대한 일반 가정과 같거나 비슷하게 만들고, 나아가 시설내 그룹홈이나 공동주택형 거주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위탁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직접 수용보호의 비중을 낮추어서 궁극적으로는 대안가정센터 및 복지 지원 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안가정운동본부<sup>2)</sup>나 한국수양부모협회<sup>3)</sup>의 활동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동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도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 둘째,

생활교사의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생활교사라면 아이빌라 2동 302호 공동생활가정의 원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설(院)의 사무실과 식당, 물리치료실 등은 지원체계 혹은 공동시설 정도로 여기고 아웃소싱하듯 활용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사무실이고 이 식당은 우리 식당이고 이 물리치료실은 우리 치료실이다. 즉 아이빌라 2동 302호에서 사무원과 영양사와 치료사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다”는 생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만들어 경우에 따라 시설(院)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시설(院)의 이름으로 외부의 자원체계에 proposal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조차 없이 수십명의 생활인들을 돌보는 비법인 시설 운영자들 중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회복지를 전공하고서도 열명도

---

2) <http://www.daeanhomework.org/> 전화 053-253-4675 팩스 053-253-4673

“(사)대안가정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친가정을 대신해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할 대안가정을 찾아주고, 아동이 대안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안가정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그저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보살피는 것입니다. 내 아이처럼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과도한 의무감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졸지에 가정을 잃고 친부모와 헤어져야 할 상황에 처한 아동을 내 가정을 열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단기간 아동을 돌볼 수도 있고, 아동을 위탁양육하다가 입양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3) <http://www.ngopower.net/> 전화 02-943-9119~9120

“한국수양부모협회는 가정위탁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부양의무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여 친가정으로 복귀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시설에서 성장하거나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안되는 소수의 생활인들을 잘 도울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운영비와 생활비, 인건비, 사업비까지 대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제는 가정당 2~3명의 직원이 배치되는 셈이므로 그중 한 사람을 시설장으로 정하여 진짜 소그룹 공동체처럼 운영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院)에 소속된 생활교사, 생활지도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소극적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아이빌라 2동 302호에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라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 셋째,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결연자 활용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동네 친구들, 이웃집 사람들, 고모, 이모, 작은 아빠, 큰 아빠, 외삼촌, 교회 선후배, 동호회 사람들 등의 관계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혼자 살지 못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웃이나 친척이나 知人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를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혹은 결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대상자, 클라이언트, 케이스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생활자들은 도움을 받을 때, 봉사꺼리, 일감, Recipient, Dependent, Patient, Case, Object의 지위에서 애같은 노릇을 하고, 시설 밖의 사람들은 온정적 시혜자, 후원자, 봉사자, 치료자, 교육자라는 지위를 갖고 부모같이 행세합니다. abnormal합니다.

시설의 생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동네친구, 이웃, 친척으로서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주로 열등한 교환지위를 점하게 되는데 이는 불가피한 현상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시설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에 격리,수용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지의 섬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만일 생활교사, 생활지도원이라면, 우리의 생활자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결연자보다는 대리 혹은 가상의 가족과 친척, 평범한 친구, 이웃 등 최대한 보통의 사회적 관계망들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는 곳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관계로 살아갈 사람들을 개발

할 것입니다. 시내에 계신 분도 좋고 먼 고장의 사람들도 좋습니다. 시설(院)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무개네 집 (아이빌라 2동 302호)” 이름으로 섭외하여 이웃처럼, 친척처럼, 친구처럼 오갈 수 있는<sup>4)</sup> 사람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정보원의 실무합숙훈련(겨울방학 중 10주간) 중 설날 전후로 8박 9일 동안 어느 장애인 생활 &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 400여 주변 가정들을 방문하여 명절을 이웃 장애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근무를 종결한 후에 院 주변 500미터 이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4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면접조사하여 336부의 설문지를 회수했습니다. 대규모 장애인 생활시설로 보지 말고 5~6명 단위로 모여 사는 작은 가정들의 연립주택 정도로 여겨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오가며 이웃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들 (정기적인 자원봉사나 후원·결연이 아님) 을 홍보하며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64.4%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포함 시킨다면 98%가 긍정적 선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모르거나 계기가 없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웃, 친척, 친구, 형·누나, 오빠·동생들, 동네 아저씨, 아줌마, 동네 아이 등 평범한 知인들이 많아져서 굳이 자원봉사자라 할게 없겠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시설에서 입주자(생활인)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계획적으로 봉사자를 모집, 관리하기보다 오히려 자원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을 위해 봉사꺼리, 일감으로서 우리 생활자 및 생활환경에 배치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4) 저는 91년 12월에 큰 아들을, 그리고 다음해 92년 12월에 작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12개월 차이의 연년생 두 아들은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활달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집도 그랬겠지만 저희 집도 성한 물건이 없었지요. 안고 업고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간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서만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이웃집이나 친척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시장이나 놀이터에도 자주 가고 교회나 각종 모임에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엄청나게 복잡했지요. 움직일 때마다 분유와 기저귀, 장난감 등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았고 똥오줌싸는 것도 고려해야 했고 차안에서 울거나 토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아이를 내려놓는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엄마에게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은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육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더 낳자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가둬 키우지는 않았습니니다. 신경쓰이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보통의 육아방식이었습니다.

장애아동 등 시설의 생활교사, 생활지도원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때는 비록 전쟁처럼 고달픈 외출이라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네 시설의 아이들, 시설의 생활자들을 맡게 되면 왜 달라질까요?

시설에 사는 아이들에게 있어 이웃집에 놀러가고 시장에 가고 놀이터에 가고 시내에 외출하는 것은 특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시설 아이로 길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생활교사라면 생활인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봉사자를 계획적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시설에 찾아오는 봉사자중 우리 생활자 개개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서 봉사자의 등급을 분류하겠습니다.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대하고, 도움이 될 사람들은 적극 붙들겠습니다. 여러날 함께 생활하면서 봉사하거나 장기적으로 찾아오는 봉사자들, 그래서 우리 생활자에게 정이 든 양질의 고급 봉사자들만 선별하여 생활자 개개인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개인별 봉사단을 운영하되 봉사단 자체적으로 생활자를 위한 케어, 교육, 문화체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봉사자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생활자 개인별 케어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고 “봉사활동 기록 양식”을 개인별 케어매뉴얼 뒤에 첨부하겠습니다. 양질의 고급 봉사자들에게는 봉사할 때마다 기록을 덧붙이도록 하여, 매뉴얼을 계속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아이빌라 2동 302호 아무개를 위해서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철공소 아저씨 등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철공소 아저씨의 도움을 받되, 아무개가 편안한 자세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앉는 의자와 팔 지지대의 재질, 높이, 각도 등을 끊임없이 함께 의논하고 개발,개선하겠습니다.

한 생활자의 ADL, 건강, 학습, 사회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회적 관계망들을 만들어가는 것, 한 생활자를 위한 양질의 자원체계를 조직,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일이 되고, 적절한 긴장감과 도전의식,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지요.

꾸준히 공부하여 자신의 일을 개선, 개발, 혁신해나가며 그 지적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가는 것, 이것은 사회사업가에게 있어 큰 즐거움이며, 만약 이러한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리 보람있는 업무라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같은 방식으로 씻기고 옷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청소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근무방식이라면 비록 편하고 수입이 많다 해도 즐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맡은 생활자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개선되지 않고 저의 일하는

방식도 개선, 개발, 발전되지 않는다면 근속년수가 늘어 그만큼 더 보수를 받는게 오히려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인상된 봉급에 상응하는 저 자신의 상품가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자괴감과 구차스러움에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 넷째,

시설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활자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싶으면 시설 안으로 가수나 극단을 초청하여 공연하기보다는 외부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캠프를 하기 보다는 외부의 캠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등산도 최대한 지역사회의 산악회나 등산동아리에 섞여 갈 수 있도록 발바닥 닳아지게 돌아다니며 개발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방식과는 다르게 복지의 섬, 복지의 성, 드림랜드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 다섯째,

생활자 개개인을 좀더 인격적으로 대하여 가치있게 여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

5) 제목 :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간호사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나를 볼 때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별로 영리하지 못한 움츠러든 늙은 이인  
먼 곳을 보는 듯한 눈과 번덕스런 습관  
대답도 잘 못하고, 음식을 흘리는...

당신이 한번 해 보시죠?  
당신이 큰 음성으로 소리칠 때 당신이 하는 일을  
눈치도 못 채는 듯 보이는  
그리고 항상 벗겨지는 신(양말)

반항을 안 하든 못 하든 당신이 하고자 하는 테로 내맡기는  
목욕을 시키든 먹이든 긴 날을 채우기만 하는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당신이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눈을 뜨시오  
당신은 나를 보고있지 않습니다

Normalization의 이념에서 나온 SRV(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여겨지는 역할을 강화함) 실천전략은 장애인·노인이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여겨지는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애인·노인에게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적으로는 장애인·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의 주거환경과 활동공간, 음식, 의복, 생활용품, 생활방식 등을 최대한 보통사람들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저는 나아가 생활자를 대하는 우리의 언어와 복장, 예법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의 인지 능력, 사고 능력에 관계없이 연령에 맞게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생활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생활자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좌우됩니다. 물론 생활자 본인의 자존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생활자들은 또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생활자에게 사용하는 언어와 말투에 품위가 떨어지는 것과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과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 것과 신발을 구겨 신는 행위는 우리 복지시설들의 큰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와 품행, 복장에 좀더 주의하고, 우리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양해야겠습니다.

---

당신이 하는 데로 움직이고 당신이 먹이는 데로 받아 먹지만,  
나는 말하리라 내가 누구라고  
조용히 여기 앉은 채로.... - 중략 -

나는 지금 늙은 여인  
자연은 포악하오  
이런 것들이 나를 바보 늙은이로 보이게 하오  
몸은 무너지고 풍부함과 활력은 떠나버렸오  
그리고 뜨거웠던 심장 대신에 돌덩이가 자리 잡았오  
그러나 이 늙은 짐승 속에도 소녀는 아직 살아있오

나는 기억하오 즐거웠던 것을  
나는 기억하오 쓰라렸던 것을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다시 살고 있오  
그리고 아무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소

그러니 간호사 눈을 뜨시오  
쭈그러진 노인으로 보지 말고 가까이 서서 나를 보시오

- 아일랜드의 양로원에서 발견된 유물

기타,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별히 시골지역은 지역복지센터 역할까지도 하지요),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잠재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집에서 운동, 치료, 학습할 수 있는 요령, 가정지도 요령, 간단한 케어 기술 등을 가르쳐 주는 등 이미 사회복지계에 널리 알려진 시설 실천방법들도 꾸준히 발전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 케어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요 ?

리처드바크의 작품 “갈매기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

보통의 갈매기들이 고깃배 주위를 맴돌며 먹이를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조나단은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찬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더욱 숭고한 목적을 찾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완벽하게 날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당면한 현실적 과제인 「먹이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부모와 동족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창가와 고깃배 주위를 날며 먹이를 얻으려고 끼룩소리를 지르고 싸우면서 고기나 빵, 과자 부스러기를 좇아 분주히 움직이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해보기도 했지만, 곧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태롭고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는 평범한 갈매기들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갈매기의 세계에서 쫓겨나지만 구차하게 사정하거나 비위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새로운 비행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선형의 고속 낙하 비행으로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싱싱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부는 바람을 타고 내륙까지 들어가 맛있는 곤충들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안개와 비 때문에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해변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조나단은 구름 위의 눈부시도록 해맑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고깃배를 좇아 다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실무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먹이를 구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였지만, 조나단은 낮은 수준의 현실적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숭고한 목적, 더욱 높은 수준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 결과 낮은 수준의 현실적 문제, 즉 “먹이를 구하는 것”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복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예산을 핑계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복지관, 인력과 예산부족을 탓하는 사람들, 실적에 매달리는 사람들, 생활시설에서 케어 업무에 치여 허덕이는 사람들, 예산과 실적과 케어업무를 초월하여 더 높은 목표와 더 좋은 방법론을 터득하면 예산과 실적과 케어업무는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데, 조나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방했던 갈매기들처럼 그렇게 낮은 수준의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실천하면 현실은 더 이상 악조건도 불평거리도 되지 않을 텐데 우리 복지인들이 너무도 나약하고 엄살이 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4월 생활시설 직원이 2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배로 늘어난 투입만큼 산출도 두배로 증가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직원 각자가 자신의 비전과 역할, 방법론을 바꾸지 않는다면, 비용이 늘어난 만큼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깃배가 두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갈매기들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 이 글은 2003년 1월 14일에 수정되었습니다. 정보원 - 복지경영에 링크되어 있으며 수시로 수정,보완됩니다. 이 생각과 원고를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 복사, 발췌, 전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사회복지정보원 제2기 실무합숙훈련생들이 2001년 설날 전후로 부천 혜림원에 단기근무하던 때에 지역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나눠드렸던 홍보자료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당시 팀장이었던 이기남 선생(현재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사로 근무 011-9858-464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동네 이웃사촌들의 작은 사랑이야기



언제나 이웃집 옆집처럼 오고가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혜림원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혜림원의 장애인분들은 지역주민들과 진정한 이웃처럼 편안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 사랑 1) 이웃 사랑의 정이 듬뿍 담긴 음식 나누어 먹기!!



성지 APT에 사는 보라네 집에서 맛나는 부침개와 떡볶기를 가지고 뼈꼭새방 식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맛나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라와 뼈꼭새방 효정이는 동갑이어서 더 없이 좋은 친구가 되었고, 보라는 뼈꼭새방 언니 동생들에게 종이장미 접기를 가르쳐 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랑 2) 물리치료실에 꽃핀 이웃사랑!!

박00 할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부천 혜림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기가 미안하다 하시며 며느리와 만들었다는 한과를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덕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장씨

할머니, 이씨, 박씨 할머니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 모두 함께 맛있는 한과를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랑 3) 장애인 친구와 함께한 잊지 못할 생일파티!!



지난 1월 13일은 로얄 APT에 사는 성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성진이는 혜림원에 살고 있는 과량새방 친구 두 명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림원에 살고 있는 미경이와 호진이는 초대해준 성진이에게 혜림원에서 만든 맛있는 롤 케익을 선물하였고, 생일파티에 참여하였던 모두가 웃고 떠들며 성진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습니다.

### 사랑 4) 기범이형! 가오리연 만들어 주세요!!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한기범씨는 어렸을 때부터 연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좋은 기술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혜림원에 찾아왔습니다. 혜림원 은총의 집 식구들과 연만들기를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은총의 집 식구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혜림원에만 가면 연 만들자고 매달리는 은총의 집 식구들이 있기에 오늘도 기범씨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혜림원을 향해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 사랑 5) 의미있는 가족나들이 추억!!



설날을 맞이하여 로얄 APT에서 사는 승섭이네 집에서 남산한옥마을에 나들이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맛있는 김밥과 부침 준비하고 몇 가지 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혜림원 비둘기방에 전화하여 식구 두 명을 나들이에 초대하였습니다.

혜림원의 재화와 병주가 함께 하였던 남산한옥마을 나

들이에서 승섭이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재화와 함께 하였던 널뛰기였다고 합니다.



■부천혜림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3-99 전화 032) 666-7990

아래의 글은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5학번으로 3차 복지순례와 제8차 정예화캠프 장애인복지분과 준비팀으로 참여한 박진제 선생이 부산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쓴 글입니다.

2001년 제 3차 복지순례에서

무뎀던 2001년 여름 사회복지정보원 제 3차 복지순례를 하면서 부산 아이들의 집에 방문을 했었다. 아이들의 집이라는 말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고아원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순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모범적인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임을 어림짐작 할 수 있었다.

리플렛을 받고 기관소개를 받는 동안 그 어림짐작은 사실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리플렛 첫 면에 기재되어 있는 아이들의 집 운영방침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집 운영방침은 첫째, 아이들이 기쁨과 행복을 먼저 추구하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둘째,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과 투명성으로 운영합니다. 셋째,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장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운영방침을 보면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의 운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장수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순례 중에 찾아온 한 기관에 불가하지만,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뒤 돌아 보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1월 19일 캠프 준비팀 기관방문

순례 때 한 번 방문했었고, 참으로 인상 깊었던 곳이었기에 다시 찾아가는 길이 기대되고 설렘였다. 아이들의 집에서 왕언니이고 정보원 선배님인 천경자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기관방문을 위해서 연차를 내어서 인솔 및 안내를 해주셨다.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아이들의 집은 동 재단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국내 보이타 치료 도입과 인력양성에 10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왔고, 현재 일본 보이타치료협회와 협력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88년도부터 보이타 치료를 실시했으며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장애아들의 조기치료 및 교육에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생아부터 6개월까지의 치료와 교육의 효과가 크며,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검증된 사실이라고 한다. 치료 및 교육과 함께 중요시하는 것은 의식주였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치료와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집에서는 중상류급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특화사업 중의 하나로 섭식지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었다. 장애아들에게 조기에 정확하게 식사하는 방법을 지도하면 성장하면서 자립생활로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나 정신지체, 다운 증후군의 장애인들은 수저 사용이 어색하고, 밥과 반찬을 흘리거나 얼굴에 묻히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조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장애아동 시설에서는 치료와 교육의 주 대상이 경증이며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아동들이다. 아이들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맛사지 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중증이라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타 아동들과 똑같은 이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고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장애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증인 친구들은 넘쳐나는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서 자신보다 중증인 친구들을 괴롭히는 천사의 악마성을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가정공동체를 만들었다. 다섯 아동과 엄마 선생님 한 분으로 구성된 가정공동체에서는 엄마가 상주하며 일반 가정과 최대한 유사하게 생활하는데, 모두가 밝고 명랑하며 넓은 공간 속에서 에너지를 자유로이 발산할 수 있어서인지 모두들 친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다.

가정공동체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원장수녀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적으로 가정의 엄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재활교사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외쳐대고 있는 지금 아이들의 집에서는 3교대를 버리고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원장수녀님께서서는 “하루에 엄마가 세 번 바뀌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문제해결의 핵심은 아이들이 중심에 있었다. 재활교사와 물리치료사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떠나라”는 것이 원장수녀님의 경영원칙이었고, 모든 교사가 원장수녀님의 마인드를 존경하며 단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집 출신들이 너무 호사스러운 환경에서 곱게 자라나서 10세 이후에 타 시설로 옮기게 되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아이들의 집에 있는 아동들은 부모님이 없을 뿐 일반적인 아동들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 받고, 사랑을 누리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집에서는 부모가 없는 아동들에게 사랑을 주고 가능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타 시설에서 아이들의 집 출신 아동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사랑이 아이들의 집과 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서 아이들의 집이 변화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타 시설이 변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다. 그것이 시설의 발전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재정의 문제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사랑만큼은 충분히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환경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심신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뛰고 마음으로 일하라”는 원장수녀님의 말씀이 예비 사회복지사인 우리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이 전제해야 한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장수녀님과 사진 촬영을 하고 아이들의 집을 나서면서 지난 여름 순례 때의 다짐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변한 것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왠지 부끄러움이 느

껴졌다. 이제 두 번째로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 자신의 성장과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해야겠다. 언젠가 이 다짐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도록...

한겨레신문 2002-08-20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7면 02판)

### 「아침햇발」 재고해야할 보육원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정부 인사가 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그 나라 소외계층을 돌아보도록 하는 영국의 관례에 따라 아동복지단체를 방문하게 돼 있었다. 단체 방문에 앞서 한국의 어린이 복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던 대처가 “아니, 이 나라에 고아원이 있다는 말인가!” 하며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다. 한국의 관계자들은 영국에서는 이미 70여년 전에 보육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런던 거리가 산업 재해로 발생한 고아와 장애아로 넘쳐났다. 1867년 한 의사가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세운 것이 최초의 고아원이었다. 이후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줄만 아는 ‘복지인간’으로 성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고아원 설립 30여년 만에 고아원 지원을 중단하고 양부모 제도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1930년께 고아원이 모두 사라졌다.

여러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시설에 수용될 경우 3개월 안에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고, 나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시설 수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족이 없는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우선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내 민간단체 보고서는 어린이들을 양육시설에 두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자 ‘필요한 경우’만을 염두에 둔 조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상적인 어린이의 시설 수용은 인권침해로 규정될 정도다.

2001년 말 현재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은 238곳이고 수용인원은 1만7437명이다. 반면 가정위탁의 경우 친인척에게 위탁된 소년소녀 가장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반 가정에 위탁된 어린이는 313명에 불과하다.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단계인 그룹 홈은 정부가 선진적인 제도로 자랑하고 있지만 32곳에 그친다.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달리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부모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반 가정에서 길러주는 것이다. 수양부모가 아이를 길러주는 동안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능을 한다. 현재는 한국

---

6) 이 기사는 2003/1/11(토) 14:31 대동복지관 권술롱 관장님께서 보내신 “권총이야기 32호”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양부모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가정에 어린이를 위탁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직접 관리는 없다. 지원되는 국가의 예산도 양육시설 어린이가 1인당 최소 월 34만7천원인 데 비해 가정위탁 아이는 6만5천원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은 시설 보호가 아닌 가정 보호여야 한다고 밝힌다. 내년 각 시도에 가정위탁 부모 교육과 위탁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 한국수양부모협회에는 현재 200여 가정이 수양부모 신청을 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가정위탁 대상 어린이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실제 위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로서는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효과는 클 것이다.

예산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가정위탁 제도에 소극적인 이유는 시설 보호에만 의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시설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가정 보호를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을 가정 보호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 정부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란 '가족의 환경 속에서, 행복과 사랑, 이해의 분위기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국가간 입양과 관련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다. 한국전쟁 이후 고아들의 안식처로서 오랫동안 기여해온 보육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

고희범 natura@hani.co.kr

다음의 글은 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련하여 각주처리했다가 옮긴 것입니다.

### 자원봉사자 거부선언 중에서

지은이 : 하나다 예구보

자원봉사자는 나의 적

나는 자원봉사자 그놈들을 거부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교묘하게 자멸시킨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능숙하게 응석부리도록 만든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바라지도 않는 것을 해 주려 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겨우 남아 있는 힘마저도 약화시킨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악세사리로 만들어 거리를 활보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내 휠체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멋진 젊은이들의 결혼식을 장식하는 가련한 도구로 쓴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여름 휴가의 과제로 여긴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관찰일기를 쓰게 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사회 속에 환상의 섬을 만들어 나를 그 속에 고립시킨다.**

나는 그놈들에게 꼬리를 쳤다.

그놈들은 교묘하고 능숙하게 나를 사육하여 길들였고,

더러운 손으로 나의 턱을 어루만졌다.

나는 더 이상 그놈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그놈들의 손이 뻗쳐오면 나는 반드시 그놈들의 손을 깨물어 버릴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조정자, 썩썩이노리꼬 저, 박태영/최경익 역, '93 도서출판 은익 pp. 46-47에서 부분 인용

시설의 아동들과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명절이나 휴일에 자원봉사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피곤해 하는지에 대해 썼던 신문의 한 칼럼이 생각난다.

아래글의 출처 : 정보원 동문 공통 뉴스그룹 2002. 11. 8 한덕연

[news://news.welfare.or.kr/3DCB103F.3360E471@welfare.or.kr](mailto:news://news.welfare.or.kr/3DCB103F.3360E471@welfare.or.kr)

물론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또 좋게 여긴다.

문제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사람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이고, 그런 왜곡을 주동한 장본인들 중에 바로 사회복지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해보자.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자.

물론 예전에도 도움을 주면서 행세하고 도움 받는 것이 구차스러웠던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연스러운 보통사람의 관계로 "함께" 살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특별한 대상으로 분류, 분리해놓고서,  
자신과 관계없는 (듯 보이는) '구역'으로 따로 떼어놓고서,  
자신과는 다른 계층으로 (때로는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차별'하여서,  
우리가 아닌 그들로 대상화해놓고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아닌 특별한 활동의 대상으로 구별하고서,

이렇게 왜곡된 관계속에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게 문제이다.

물론 환경정화나 교통정리, 행사보조 등과 같이 그저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봉사영역도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되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교제와 나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제의 중심에는 사회사업가가 있다.

세상속에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회사업가에게 '걸려든' 봉사자들과 대상자들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관계로 서로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바로 사람관계를 왜곡하는 장본인들이다. 성직자들의 설교속에는 고상하고 우월한 '우리'와 불쌍하고 열등한 '그들'이 있다. 종교인들과 정치인

들과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사람의 우열이 나뉘고 인간관계가 비뚤어진다.

물론 선한 뜻으로 남을 돕는 것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정이 나쁜 것도 아니다. 수많은 복지시설들에서 착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생활자들을 돌보고 돕는다.

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가?

사실상 격리·감금과 다름없는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류되거나 분리되어 살아가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많으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다시 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시설이 얼마나 많은가?

일찍이 이웃에 살았으나 언제부터인가 정신병원에 격리, 감금되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음을 앓는 사람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http://www.yes24.com/home/pd.asp?SID=o43C6sfwS1y9RgRo9\\*iSy9Jyy0UEEvZm6A4H0VMiXjZRAvqGYshH2lgMa&STAG=13&AK=29628&TABID=1](http://www.yes24.com/home/pd.asp?SID=o43C6sfwS1y9RgRo9*iSy9Jyy0UEEvZm6A4H0VMiXjZRAvqGYshH2lgMa&STAG=13&AK=29628&TABID=1)

다양한 부류,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보통의 지역사회, 보통의 공동체속에서 남들과 어울리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생활자들의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자존의 욕구"가 무심한 사회사업가들과 봉사자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클라이언트는 또 얼마나 많은가?

"자유 평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예측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고착화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통의 자존심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가해지는 '도움'의 방식에 미처버릴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고맙기는 하지만 자존심 상하고 아니꼽고 불쾌한 '봉사'는 또 얼마나 많은가?

사회사업가들과 봉사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시설과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끌어들이는 사회사업가들의 잘못이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첫째는 일하는 자세와 인격의 문제이고, 둘째는 이념과 실천방법의 문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Natural-Fare의 결론에 쓴 바와 같이 첫째는 일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 둘째는 이념과 목표와 방법을 바르게 해야 한다.